

삼성 모니터, 4분기도 세계 시장 제패



삼성전자 모니터가 지난해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판매량 기준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여 세계 최고 모니터 브랜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인 디스플레이시치가 발표한 4분기 세계 모니터 시장 실적 분석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수량기준으로 659만 6천대를 판매해 시장점유율 14.8%로 1위를 차지했고, PC업체인 델(Dell)이 624만 8천대(14.0%)로 2위, HP가 464만 1천대(10.4%)로 3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삼성 모니터는 지난해 3분기에 시장 점유율 15.6%로 세계 시장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4분기에도 1위를 굳건히 함으로써 해외 시장에서 데스크톱 PC를 판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PC 업체와의 경쟁 속에서 삼성 모니터 '파워'를 과시하게 되었다.

삼성 모니터의 이같은 4분기 세계 시장 1위 성과는 그 동안 전 세계 고객들로부터 꾸준

히 인정받아 온 제품력과 감각적인 디자인의 프리미엄 모니터 출시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추진한 프리미엄 마케팅, 대형 LCD 디스플레이와 솔루션을 기반으로 한 B2B 시장 공략이 주효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하윤호 전무는 "삼성전자는 20인치 이상 중대형 와이드 모니터와 B2B 시장공략을 더욱 강화함은 물론, 디지털 액자 등 신상품 출시를 통해 세계 모니터 시장 리딩 업체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LG전자, 한국 TV 시장 1위

3월 30일 TV 업체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해 연간 TV 매출액 국내 1위를 차지했다.

또 지난해 1분기부터 4분기 연속 한국 시장 1위를 지켰다.

특히 LG전자는 TV 업계 처음으로 지난해 국내 TV 매출 1조를 돌파했다. 이는 TV 전체 매출액의 약 80%를 차지하는 LCD TV, PDP TV 등 평판TV 판매량이 전년대비 3배 가까이 늘었기 때문이다.

TV 판매를 시작한 66년 당시 TV 내수 매출은 약 6억 원. 40년 만에 1조 돌파의 기록을 세웠다.

지난해 내수 매출은 LCD TV, PDP TV 등 평판TV 판매가 늘어 1조 632억 원으로, 2005년(7,303억 원) 대비 약 46% 증가했다.



지난해 LCD TV와 PDP TV 판매량은 각각 20만대를 넘었는데, 2005년 대비 각각 4배, 2배 이상 증가했다.

LG전자 DDM마케팅팀장 이우경 상무는 "타임머신TV의 지속적인 인기와 풀 HD의 성공적인 시장 개척으로 평판 TV 판매가 크게 늘어 TV 매출 1조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올해도 '평판 TV=XCANVAS=타임머신+풀 HD' 구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타임머신TV는 2년 전 출시돼 현재까지 국내 시장에서만 20만대 가량 팔렸다. 37인치 이상 대형 평판TV의 50%가 타임머신으로 판매된다.

삼성전자 주요뉴스 (www.sec.co.kr)

No.	제 목	일자
1	삼성전자, 1~2월 에어컨·TV 국내 시장 1위	2007/04/04
2	삼성전자 휴대폰, 러시아서 3년 연속 1위	2007/04/04
3	삼성전자, 네덜란드 내 최고 기업 도약	2007/04/04
4	삼성전자 신성장동력, 'E2B' 사업 전초기지 세운다	2007/04/03
5	삼성전자 블랙잭, 美 CTIA서 최고 스마트폰 선정	2007/03/29
6	삼성전자, 중국정부 환경마크 인증 획득	2007/03/28
7	삼성 MP3 엠(YEPP)K3가 봄 컬러를 입었다	2007/03/27
8	삼성전자 '구미 기술센터' 기공	2007/03/23
9	삼성전자 이기태 부회장, 광주서 광산업 키운다	2007/03/16
10	삼성전자, 초고용량 8GB 모바일 메모 개발	2007/03/12

LG전자 주요뉴스 (www.lge.co.kr)

No.	제 목	일자
1	LG 전자 '샤인폰', 중국시장 상륙	2007/04/04
2	LG 전자, 대만 PC업체와 특허 협상 타결	2007/04/04
3	LG 전자, 중남미 시장 최초 3G폰 출시	2007/04/04
4	LG 전자, 한국 TV 시장 1위	2007/04/03
5	LG 전자, 유럽에 평판TV 400만대 판매한다	2007/03/30
6	LG 전자, 신개념 '먼지압축 사이킹' 출시	2007/03/29
7	LG 전자·구글, 전략적 제휴 체결	2007/03/28
8	LG 전자, 사우디 에어컨 시장 휩쓸다	2007/03/28
9	LG 전자, 'CTIA 2007'에서 첨단 기술력 선보여	2007/03/28
10	LG는 러시아 브랜드로 통한다.	2007/03/28

대우일렉, '아이디어 가전' 새 바람



대우일렉이 경영여건 악화 속에서도 디자인과 기능을 차별화 한 틈새 상품으로 시장 공략에 나섰다.

최근 삼성전자·LG전자가 인테리어 가전을 표방한 최고급 프리미엄 가전을 내수시장 주력 제품으로 내세우는 가운데 대우일렉은 높아진 소비자의 눈높이를 만족시키면서도 실속 구매가 가능한 아이디어 제품을 꾸준히 발굴하고 있다.

특히 대우일렉은 독특한 디자인과 기능을 갖춘 제품들이 젊은 소비자층으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어 봄 혼수철 매출 확대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우선 이 회사는 드럼세탁기의 디자인과 일반세탁기의 실용성을 결합한 '바람탈수' 세탁기가 출시 3년째인 올해까지 인기가 지속돼 기존 제품보다 4배이상의 매출을 기록, 일반세탁기 시장의 10%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타사가 드럼세탁기 판매를 확대하면서 기존 일반 세탁기(펄세이터 방식)에 대한 투자와 신제품 개발을 상대적으로 축소하는 것과 달리 올해 '바람탈수', '바람건조'에 이어 디자인을 업그레이드한 신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첫 선을 보인 클라세 양문형 냉장고는 블랙과 원색의 강렬한 대비를 수직면분할로 형상화한 파격적 디자인이 어필했다. 클라세 냉장고 출시 이후 양문형 냉장고 총 매출이 20%, 고급형 인테리어 모델

의 경우 30% 판매가 상승했다'

대덕전자, 반도체 패키지중심 사업 재편

대덕전자가 휴대폰, 통신, 디스플레이용 기판에서 반도체용 기판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전환한다

대덕전자는 2, 3년 이내에 전체 매출에서 반도체 패키지 기판 매출 비중을 50% 선까지 끌어올려 반도체 패키지 기판 전문 기업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한다는 사업전략을 확정했다고 3월 5일 밝혔다.

대덕전자의 이진호 고문은“자회사인 아페리 오뿐만 아니라 기존 PCB 라인 일부도 반도체 패키지 기판 라인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BOC 등에 특화돼 있는 경쟁사와 달리 대덕전자는 BOC, 플라스틱BGA, CSP, 시스템온패키지(SiP) 등으로 반도체 패키지 기판 사업을 다각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임베디드PCB, 극미세 가공기술(마이크로 비아) 등 최첨단 기술로 기존 PCB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덕전자의 또다른 관계자는 이와관련, “현금성 자산만 2000억원에 달하는 등 투자여력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대덕전자는 이를위해 올해 반도체 패키지 기판 매출을 전년 대비 3배 이상 확대한 930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총 매출을 전년 대비 15% 늘어난 3800억원을 달성한다는 전략이다.

대덕전자는 올해 삼성전자 등으로 패키지 기판 매출처를 확대할 예정이다. 대덕전자는 지난 2월 삼성전자로부터 CSP(Chip Scale Package), MCP (Multi-Chip Packages) 기판 제품에 대한 공장 승인이 완료됐으며 양산승인이 이루어지는 2분기부터 신규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LS전선, 한국폴리텍대학내에 '기술혁신대학' 개설

LS전선 기능직 사원들이 한국폴리텍대학내



에 개설된 '기술혁신대학'에서 뜨거운 학구열을 불태우고 있다.

LS전선은 현장 기능직사원의 역량강화와 자기개발을 위해 최근 한국폴리텍대학(구 한국기능대학)과 협력, 익산캠퍼스 내에 '기술혁신대학'을 개설했다고 3월 22일 밝혔다.

기술혁신대학은 총 9개월 과정으로, 올해는 기계공학과 전기전자공학의 두 개 학과 36명을 대상으로 매주 2회씩 운영되며, 내년 부터 학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과정은 기계 및 전기전자분야의 전공 과목 외에 리더십, 건강, 태테크, 노후설계 등 기술과 교양이 조화된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사진도 전문교수 외에 컨설턴트, 한의사, 투자전문가 등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사내 대학대신 운영되는 이번 기술혁신대학은 사전 수준평가를 통한 눈높이 교육과 실습위주의 전공 수업 등 수업의 질을 개선하고 수료자에게는 선진업체 견학, 해외연수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삼성전기, '인텔 우수협력업체'상 수상

삼성전기는 세계적인 반도체 업체인 인텔로부터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한 공로를 인정받아 'PQS어워드'를 수상했다고 4월 1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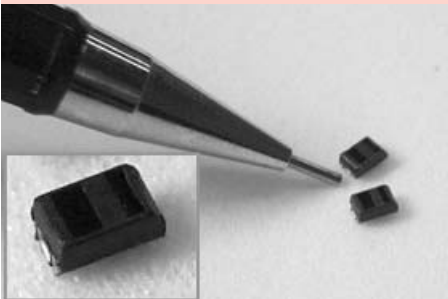
'PQS(Preferred Quality Supplier) 어워드'란 매년 인텔이 부품 및 서비스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품질, 납기, 기술 등 다양한 부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해 최고의 품질과 기술력을 갖춘 업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인텔은 전세계 1만여 협력업체 중 텍사스인스트루먼트, 히타치 등 44개 업체를 선정해 '2006 PQS 어워드'를 수여했으며 삼성전기는 PBGA·CSP·FCBGA 등 우수한 고부가 반도체용 기판과 적층세라믹콘덴서(MLCC)를 공급한 공로로 국내 업체로는 유일하게 수상했다.

삼성전기는 지난 2000년 칩세트용 BGA를 시작으로 다양한 반도체용 기판을 인텔에 공급하고 있으며 이번 'PQS 어워드' 수상으로 반도체용 기판부문에서 세계적인 품질과 기술력을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류병일 삼성전기 기판사업부장은 "향후 첨단 제품을 조기 개발해 고객에게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부가 반도체용 기판 시장을 선점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고덴시, 패키지 사이즈 반사센서 개발



광반도체 소자 및 광센서 전문 제조업체 한국고덴시는 최근 소형카메라 모듈용 초소형 반사센서(Reflective sensor) 'KPI-3020R'를 개발했다고 3월 25일 밝혔다.

이 제품은 휴대폰과 디지털 카메라의 슬림화 및 기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업계에서는 최초로 패키지 사이즈 가로 3.0×두께, 1× 높이 2.0mm 규격으로 개발됐다. 또 고 신뢰성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한 표면실장형패키지(SMLP·Surface Mountable Leadless Package) 형태로 초소형 실장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특히 가시광 차단 필터인 블랙(Black) 전자기적양립성(EMC) 적용으로 외란 광의 영향에 강하고 전력 소모량을 100mW 이하로 최소화했으며 무연(Lead Free) 환경에서 소형카메라 모듈 및 휴대폰 모듈 등 다양한 응용기기에 적용이 가능하다.

이 회사는 현재 세계 최초의 9mm 소형 카메라 모듈에 적용해 양산체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고화소·고기능의 카메라 폰 모듈의 광학 중 센서 분야의 수요를 발굴할 계획이다.

LG이노텍, RFID 사업 진출

LG이노텍이 전자태그(RFID) 시장에 진출한다. 국내 RFID 시장 활성화가 예상외로 더디게 진행되는 가운데 삼성전기, 삼성테크윈 등 삼성전자 계열사들도 RFID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LG이노텍의 시장 진출을 신호탄으로 지금까지 중소 기업들이 이끌어 왔던 시장재편 여부가 주목된다.

LG이노텍은 900MHz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RFID 리더 모듈 및 1356MHz의 NFC 리더 모듈 개발을 끝내고, 현재 MIC인증 절차를 밟고 있다고 3월 29일 밝혔다.

특히 LG이노텍은 미국 유명 RFID 업체 출신의 마케팅 전문가 영입을 추진하면서 사업 초기부터 신사업 육성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LG이노텍은 3대 사업부문인 부품단품사업, 모듈사업, 소자소재사업 이외에 RFID를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육성할 것으로 전망이다.

현재 테스트가 진행중인 RFID 리더는 마케팅을 위한 샘플용으로 개발됐으며, 현재 인식거리 및 실장성 시험 등을 검증받고 있다.

LG이노텍 측은 "개발이 끝난 1개 제품에 대한 MIC인증은 획득했고, 현재 또 다른 제품에 대한 테스트가 진행중"이라며 "영업에서도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격적인 RFID 모듈 생산은 이르면 6월부터

터 현재 LED, 카메라 모듈, 블루투스 등이 생산되는 광주 공장에서 이뤄진다.

팬택계열, 고객 눈높이 맞춘 서비스센터 운영시간



팬택계열이 고객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서비스센터 운영 종료시간을 한 시간 늦췄다. 팬택계열은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조사한 결과 퇴근 및 방과후에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판단, 서비스센터 운영시간을 평일 오전10시~오후 7시,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2시로 한 시간씩 뒤로 미뤘다. 팬택계열 신촌 고객서비스센터 임직원들이 고객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삼성SDI 기업윤리대상 수상



삼성SDI는 한국기업윤리학회가 주최하는 '기업윤리대상' 수상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3월 15일 밝혔다.

올해 7회째를 맞는 기업윤리대상은 각 대학의 경영학과 교수진으로 구성된 기업윤리학회가 윤리 경영에 높은 성과를 보인 기업을 선정해 수여하고 있다. 학회는 심사평을 통해 "삼성SDI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윤리 경영 실천을 통해 21세기 디지털 시대의 글로벌 기업으로서 모범적인 기업상을 보여주고 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삼성SDI는 국내외 임직원용 윤리경영 사이트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4월에

는 전사의 윤리경영 실천전략을 발표하는 등 윤리 경영에 매진하고 있다.

실트론, 12인치 웨이퍼 8인치 역전

실트론의 12인치(300mm) 웨이퍼 매출이 2003년 출시 이후 처음으로 기존 주력품목인 8인치를 넘어섰다. 이 같은 12인치 제품의 성장에 힘입어 실트론은 지난해에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

국내 유일의 12인치 웨이퍼 생산업체 실트론은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대비 약 15%, 145% 늘어난 5905억원, 1001억원을 기록했다고 4월 8일 밝혔다. 이 같은 성과는 전년대비 2배 가까이 크게 늘어난 12인치 웨이퍼 공급물량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전체 매출의 35.8%를 차지한 12인치 웨이퍼는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8인치 매출을 1% 안팎의 근소한 차이로 제치고 주력 제품으로서 입지를 다졌다.

실트론 측은 “지난해말 12인치 제품 공급량이 11만장으로 2005년(6만장 규모)보다 80% 이상 늘어났다”며 “이에 따라 근소한 차이지만 12인치와 8인치 제품의 매출이 역전되는 상황이 전개됐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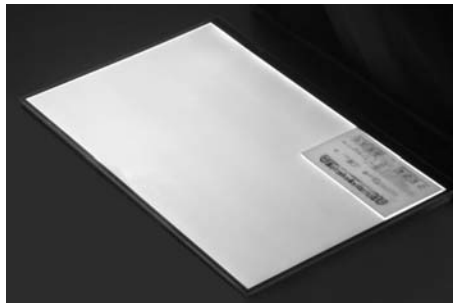
실트론은 올해도 12인치 웨이퍼 수요가 꾸준히 늘 것으로 보고 현재 월 10만장을 다소 웃도는 생산능력을 연말까지 17만장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구미 3공장에 12인치 생산라인을 증축중이다.

아이디에스, 0.45mm 초박형 LCD 도광판 세계 최초 개발

세계 처음으로 0.5mm 이하 초박형 LCD도광판이 개발됐다.

아이디에스는 일본 전자부품업체 미야카와와 함께 0.45mm 두께의 노트북용 121인치 도광판을 개발했다고 3월 25일 밝혔다.

LCD 도광판은 광원에서 나온 빛을 LCD



전체 면에 균일하게 전달하는 부품이다.

특히 이번에 개발된 도광판은 초박막화에 어려움이 있는 기존 사출 제조방식이 아니라 잉크젯을 이용해 프로그램된 패턴을 인쇄하는 프린팅(MLAP) 방식이 적용돼 금형 제작에 따른 비용을 줄이고 패턴 변경과 수정을 위한 시간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또 기존의 냉음극형광램프(CFL) 광원 대신에 두께와 밝기 구현의 용이성, 환경문제 등으로 시장 도입이 늘고 있는 발광다이오드(LED) 광원을 겨냥해 개발됐다.

그동안 노트북에 사용된 도광판은 주로 CFL광원용 2mm 제품이 주류를 이뤄왔고 최근 도입이 시작된 LED광원용 제품도 0.7~0.9mm 두께의 도광판이 탑재되고 있어 이 제품이 출시되면 현존 도광판 가운데 가장 얇은 제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디에스 측은 “세계 최초의 0.45mm 제품으로 이를 적용한 백라이트유닛(BLU)은 기존 제품보다 두께는 약 36% 얇고 밝기는 20% 이상 높아졌다”며 “이 제품을 탑재한 자체 BLU 생산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코원시스템, 미디어센터 공개



코원시스템은 온라인 멀티미디어 통합 솔루션으로 탈바꿈시킨 ‘코원 미디어 센터-제트오디오’를 3월 25일 공개했다.

코원 미디어 센터-제트오디오는 각종 동영상·음악 파일 등을 종합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로 MP3플레이어나 FMP 등 디지털 기

기를 컴퓨터에 연결할 때 코원 미디어센터--제트오디오의 ‘디바이스 매니저’ 기능이 자동 연동된다. 이에 따라 컴퓨터에 저장된 각종 콘텐츠를 자유롭게 검색하고 드래그&드롭 방식으로 각종 기기에 손쉽게 다운로드나 업로드할 수 있다. 콘텐츠를 재생기기의 사양에 맞게 변환하거나 컴퓨터 상에서 즉시 재생할 수도 있다.

이밖에 오디오·비디오 파일에 입력돼있는 태그에 따라 음악가, 앨범, 장르, 등급, 템포 등으로 자동 분류한다. 태그의 개별편집 및 다중편집도 코원 미디어센터를 통해 가능하게 됐다. 이 SW는 코원시스템 홈페이지(www.cowon.com)를 통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삼성코닝, 삼성전자에 면광원BLU 공급

삼성코닝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40인치 면광원 LCD 백라이트 유닛(BLU)이 삼성전자 LCD TV에 처음으로 채택된다.

삼성코닝은 지난해 32인치 면광원 BLU에 이어 40인치 제품으로 라인업을 확대함에 따라 올해를 기점으로 차세대 신수종사업으로 육성중인 BLU사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코닝이 작년 말 개발한 40인치 면광원 백라이트 유닛이 최근 삼성전자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다”며 “이르면 4월 이를 채택한 LCD TV가 출시될 것”이라고 3월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코닝은 3월 말까지 40인치 면광원 BLU 초도물량을 삼성전자에 납품키로 하고 양산에 돌입했다.

삼성전자는 32인치와 마찬가지로 40인치 면광원 BLU 채용 LCD TV를 국내 시장에 먼저 출시한 뒤 중국, 동남아 등 수출 제품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삼성코닝 관계자는 이와 관련 “32인치에서 40인치로 제품 라인업이 확대됨에 따라 향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